

勞使 문제에 대한 교회의 관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宣敎의 실패를 들 수 있다면 그것은 勞使 문제였을 것이다. 유럽의 産業 혁명이 낳은 하나의 큰 사건은 노사 간의 대립과 긴장에 있어서 교회는 늘 기업가 측에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럽의 교회의 중추를 형성한 것이 중산 계급의 상인, 중소 기업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마르크스주의가 대두되고, 교회는 유물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독교는 종교 개혁 당시부터 중산 계급을 토대로 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루터나 칼빈의 신학도 역시 대기업가나 혹은 현대의 매카니즘 속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에는 먹어들어가지 않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산 계급의 교회가 기업가 편에만 가담했기 때문에 유럽에 공산주의가 생겼다. 그 결과로서 현대와 같은 공산세력의 위협 속에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유럽의 교회가 잘못을 자인하는 태도가 생겨지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산업 혁명 당시 교회가 진정으로 가난한 품팔이 노동자 편에 섰던들 공산주의가 정말 그처럼 서구 사회를 휩쓸 수 있었겠는지 의문이다. 복음은 어디까지나 한 계급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늘림을 받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만 한다.

오늘의 세계 정세에서 제 삼의 세계 가운데로 발전 도상에 있는 한국의 형편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노사 문제를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럽에서 교회가 실패한 역사를 이 땅위에서 되풀이 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급격히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소외를 극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가 없고 하물며 극단적인 좌익계열의 선동에 맡겨둘 수가 없다. 왜냐 하면 한국에 있어서 가장 교회가 망각하고 있는 분야가 이 산업 선교이며, 또 공산 분자들이 침투할 수 있는 취약 지대가 바로 이 노사간의 분쟁 지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노동절에 박 대통령은 노사간의 분쟁은 대결보다 조정과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노사간의 분쟁은 언제나 극한 투쟁이라는 형식을 취해 왔는데 이러한 결과로서는 얻어지는 성과보다 잃어지는 면이 더 많다. 교회가 피고용인의 입장을 동정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이 곧 공산주의자들의 방식대로 극한 투쟁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실력 행사를 하는 가운데도 협상과 대화를 가지게 함으로써 선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무책임한 기업가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에 있어서 경제 발전은 절대적인 요청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발전의 바탕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이 가지는 정신적 자세에 두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정의는 결코 흑백을 가리듯이 간단한 것은 아

이다. 기업가의 탐욕을 경고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책임 의식을 제
정하는 일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와 명찰을 가진 노동 운동의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나
오지 않는한 한국의 노동 운동은 자칫하면 정치의 도구화가 되거나
극좌 세력의 침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진다.

북괴와의 대결 속에 진행되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는 이러한 폭
발적인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성을 신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다루어서 북괴의 공산주의에 못지 않는 산업 사회를 이
룩한다는 것이 통일을 내다보는 교회의 과제일 것이다.